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의 변새시(邊塞詩)에 나타난 창작기법과 미적 특질 「서정고(西征稿)」, 「북정고(北征稿)」를 중심으로

하정승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부교수, 한국한문학 전공
gohak@andong.ac.kr

- I. 머리말
- II. 변새시의 발생과 전개 양상
- III. 어촌의 변새시에 나타난 객창감(客窓感)과 호기(豪氣)
- IV. 맺음말

I. 머리말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 1487-1540)은 조선중기에 활동했던 문인이다.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학문에 매진하여 15세 때인 1501년에 강릉에서 치러진 향시에서 장원을 하였고, 1513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뒤로 대제학, 공조판서, 이조판서, 의정부 좌참찬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말년에는 쫓겨나 있던 김안로를 천거했다는 탄핵을 받고 고향인 강릉으로 낙향하여 여생을 보내다 1540년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관직에 나아가 벼슬을 했던 환로기(宦路期)는 27세 과거 합격 후 52세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인데, 그는 이 기간 동안 내·외직을 고루 경험하였다. 그의 문집인 『어촌집』에 실려 있는 「동관록(東關錄)」·「서정고(西征稿)」·「북정고(北征稿)」·「관반시잡고(館伴時雜藁)」는 환로기 때 썼던 작품들로 「동관록」은 1530년 강원도관찰사로 부임했을 때의 작품이고, 「서정고」는 1536년 평안도 경변사(平安道警邊使)로 나갔을 때의 작품이다. 「북정고」는 1537년 함경도관찰사 시절의 작품이고, 「관반시잡고」는 1537년 명(明)의 사신 공용경(龔用卿)·오희맹(吳希孟)이 황태자의 출생을 알리러 왔을 때 관반사(館伴使)가 되어 접빈하면서 수장했던 작품이다.¹⁾ 본고에서는 이중 특히 「서정고」와 「북정고」에 주목하고자 한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나라의 최전방이자 중국과의 국경으로 서울이나 기타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변방 특유의 풍광과 정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국경지대에는 군영(軍營)이 설치되고 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 한시사에서는 변방과 세외(塞外)의 쓸쓸한 풍경, 지역의 독특한 문화, 전장(戰場)의 긴장감과 두려움, 군영과 군인들의 다양한 모습, 종군(從軍)의 다양한 경험, 황량한 들판과 곤궁한 백성들의 삶, 아름다운 자연, 변방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인생무상, 나그네 의식과 객수(客愁) 또는 객창감(客窓感),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 일망무제의 드넓은 자연에서 장대하고 호쾌한 감정을 표현한 것, 국토에 대한 애정과 변방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등을 다룬 시들을 일컬어 소위 '변새시'라고 불리왔다.²⁾

1) 이에 대한 사항은 하정승, 「어촌 심언광의 한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특질」, 『동양학』 55집(2014), 66-67쪽 참조.

2) 중국이나 한국에서 사용된 변새시의 개념에 대한 것은 김영주, 「고려-조선전기 변새시

중국문학사에서 변새시의 출발은 그 유래가 『시경』에서부터 비롯되어 매우 오래되었지만 문학사에 중적을 남길만한 본격적인 창작은 당나라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³⁾ 초당(初唐)의 심전기(沈佺期), 진자양(陳子昂) 같은 이는 변새의 풍광을 다룬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 후 성당(盛唐)에 가서는 잠삼(岑參), 고적(高適), 왕창령(王昌齡), 왕지환(王之渙), 이기(李頎), 왕한(王翰), 최호(崔顥) 같은 소위 '변새시파' 시인들은 물론이고 두보 같은 대가도 변새시를 남겼다. 이는 당시(唐詩)에서 변새시가 하나의 중요한 창작의 장르이자 유파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문학사에서 변새시의 출발은 고려시대의 이규보이다. 그는 종군의 체험을 바탕으로 대략 10여 수의 변새시를 남겼다. 이규보를 이어 김구(金丘)는 원나라에 사행을 떠나면서 들른 함경도 국경지역의 풍광을 접하고 시를 지었다. 13세기의 또 다른 시인 홍간(洪侃)은 새외의 풍광과 군영의 모습, 그곳에서 느껴지는 고즈넉한 분위기와 쓸쓸함을 시로 담아냈다. 14세기에 이르면 좀 더 많은 시인들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새시가 작시된다. 이색, 정몽주, 이첨, 김구용, 권근이 그 대표적인 시인들인데, 국경으로 제수 받아 떠나는 인사를 전송하는 시라든지 중국 사행을 가는 도중 목도한 풍광을 읊은 것, 의주(義州) 등지를 여행하며 쓴 것 등 내용이 다양하다.

이들을 이어 조선전기인 15세기에 이르면 신숙주, 서거정, 이승소, 강희맹, 김종직, 홍귀달, 성현, 정수강, 조위, 정희량, 김세필, 이행 등으로 변새시의 작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한국의 한시사에서 변새시의 본격적인 창작과 발전은 조선조에 들어와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몇몇은 교유관계가 깊은 문인들로 아마도 어느 한 사람이 지으면 그 영향 하에 서로가 변새시를 창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보다 한 세대 후인 16세기 초반 활약했던 문인이 바로 어촌 심언광이다. 어촌은 문집에 따로 「서정고」와 「북정고」라고 편명을 달고 변새시를 모아 놓았을 만큼 변새시 창작에 열정이 있었으며 또 많은 수의 시를 작시하였다. 고려후기로부터 조선중기에 이르기까지 어촌과 같이 문집에

의 양상 연구, 『동방한문학』 60집(2014), 7-9쪽 참조.

3) 물론 『詩經』에 수록된 從軍의 노래들 및 漢나라나 魏晉南北朝 시대에 지어진 많은 악부체 작품들, 예컨대 曹操의 「苦寒行」, 謝靈運의 「隴西行」·「苦寒行」, 謝惠連의 「從軍行」 같은 작품들도 변새시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변새시의 본격적인 작시는 당나라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변새시만을 따로 편찬한 경우는 많지 않다.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작품의 수준을 놓고 보더라도, 표현기법 면에서나 다양한 의상의 활용 측면에서 어촌의 변새시는 매우 뛰어나다. 어촌과 동시대 인물 중 변새시를 즐겨 지은 대표적인 인물로 복재(服齋) 기준(奇遵, 1492-1521)을 꼽을 수 있지만, 작품의 양적인 면에서 어촌은 기준의 시를 압도한다. 따라서 일단 어촌을 16세기 전반기의 최고의 변새시 작가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지금까지 어촌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시세계의 전반적인 특징을 다룬 것, 지인들과의 교류시(交遊詩)에 대한 것, 어촌시에 나타난 자연인식에 대한 것, 서북지방의 지방관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다룬 것, 영사시에 대한 것, 만시를 다룬 것, 어촌시의 풍격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⁴⁾ 본고에서는 어촌의 변새시에 주목해서 특히 표현기법 측면에서는 의상(意象)에, 내용적 측면에서는 객수(客愁), 객창감(客窓感)

4) 심언광의 문학을 다룬 선행 연구업적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김은정, 「어촌 심언광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5호(2000); 김은정, 「어촌 심언광의 교류시 연구」, 『어촌 심언광 연구총서』 1집(강릉문화원, 2010); 신익철, 「심언광의 동관록과 귀전록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그 의미」, 『어촌 심언광 연구총서』 1집(강릉문화원, 2010); 이한길, 「어촌 심언광의 한시 고찰」, 『어촌 심언광 연구총서』 1집(강릉문화원, 2010); 이한길, 「어촌 심언광의 경포 관련 한시 고찰」, 『어촌 심언광 연구총서』 1집(강릉문화원, 2010); 박해남, 「어촌 심언광의 시문학 고찰」, 『제2회 어촌 심언광 전국 학술세미나 자료집』(강릉문화원, 2011); 박영주, 「어촌 심언광 시세계의 양상과 특징」, 『고시가연구』 27집(2011); 김형태, 「어촌 심언광 시의 자연인식과 상징성 연구」,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강릉문화원, 2014); 박동욱, 「조선 지방관의 고단한 서북 체험」, 『제3회 어촌 심언광 전국 학술세미나 자료집』(강릉문화원, 2012); 강지희, 「어촌 심언광의 영사시에 대한 일고찰」, 『제3회 어촌 심언광 전국 학술세미나 자료집』(강릉문화원, 2012); 하정승, 「어촌 심언광의 한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특질」, 『어촌 심언광 연구총서』 2집(강릉문화원, 2014); 박종우, 「어촌 심언광 한시의 풍격과 미적 특질」, 『어촌 심언광 연구총서』 2집(강릉문화원, 2014); 박동욱, 「심언광의 북정고 연구」,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강릉문화원, 2014); 박용만, 「심언광의 황화집 수록 한시에 대한 고찰」, 『제6회 어촌 심언광 전국 학술세미나 자료집』(강릉문화원, 2015); 김진근, 「어촌 심언광의 산문에 대하여」, 『제6회 어촌 심언광 전국 학술세미나 자료집』(강릉문화원, 2015); 박영주, 「어촌 시 평설」(강릉문화원, 2015); 김명준, 「어촌 심언광의 정치문학」, 『제7회 어촌 심언광 전국 학술세미나 자료집』(강릉문화원, 2016); 김중서, 「어촌 심언광과 해운정」, 『제7회 어촌 심언광 전국 학술세미나 자료집』(강릉문화원, 2016); 박영주, 「어촌 심언광 시에 형상화된 관동의 풍토성」, 『제8회 어촌 심언광 전국 학술세미나 자료집』(강릉문화원, 2017); 박해남, 「어촌 심언광의 계축시 고찰」, 『제8회 어촌 심언광 전국 학술세미나 자료집』(강릉문화원, 2017); 박영주, 「어촌 심언광 문학세계 개관」, 『어촌 심언광 연구총서』 4집(강릉문화원, 2017); 박영주, 「어촌 심언광 시의 역사적 평가」, 『어촌 심언광 연구총서』 4집(강릉문화원, 2017); 신익철, 「어촌 심언광 시의 문집별 특징」, 『어촌 심언광 연구총서』 4집(강릉문화원, 2017); 박종우, 「어촌 심언광 시가 지닌 맛과 멋」, 『어촌 심언광 연구총서』 4집(강릉문화원, 2017).

과 호기(豪氣)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변새시의 발생과 전개 양상

일반적으로 중국문학사에서 변새시는 성당(盛唐)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유파로 보는 것이 관례이지만, 사실 변방의 풍광과 종군의 체험을 다룬 시를 '변새시'로 규정한다면 그 기원은 『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⁵⁾ 그 후 한(漢), 육조(六朝)를 거쳐 수(隋)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이 존재해왔다.⁶⁾ 특히 한나라 때의 악부 중 군악(軍樂)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횡취곡(橫吹曲)"은 북과 피리를 통해 연주되었으며, 당(唐)에 이르러서는 "출새(出塞)"·"전출새(前出塞)"·"후출새(後出塞)"·"새상곡(塞上曲)"·"새하곡(塞下曲)" 등으로 변화하여 변새시의 가장 중요한 장르로 발전하게 되었다. 남·북조시대의 변새시 또한 대체로 악부(樂府) 계열의 작품들인데, 예컨대 조조(曹操)의 「고한행(苦寒行)」, 사령운(謝靈運)의 「농서행(隴西行)」·「고한행(苦寒行)」, 사혜련(謝惠連)의 「종군행(從軍行)」 등이 그 대표작이다. 하지만 변새시의 활발한 창작은 당에 이르러 본격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소위 '초당사걸(初唐四傑)'로 불려지는 왕발(王勃), 양형(楊炯), 노조린(盧照隣), 낙빈왕(駱賓王)은 변방과 출새(出塞), 종군(從軍)을 다룬 시들을 많이 창작했다. 아마도 육조 시대 유행했던 섬세하고 유약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 혹은 궁궐 생활을 제재로 하는 궁체(宮體) 등의 작시 경향에서 탈피하고자 변방과 종군의 현장을 의도적으로 다루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심전기(沈佺期)와 진자양(陳子昂)이 변새시의 계보를 이었다. 이 중 특히 낙빈왕과 진자양은 초당(初唐) 변새시의 가장 중요한 작가이다. 그들은 새외(塞外)의 자연풍광이나

5) 가령 『詩經』에는 「豳風」의 〈東山〉, 「邶風」의 〈擊鼓〉등 변새시 계열로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

6) 김영주는 한나라 및 위진남북조의 악부체 시 가운데 군가, 군악 및 비애와 애달픈 정서를 기조로 한 유랑객이 노래하는 민간의 가요 등을 出塞詩로 규정하고, 宋代 郭茂倩이 편찬한 『樂府詩集』 가운데 출새시로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출새시도 변새시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고 변새시의 범주 안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주, 「한국 한시에 나타난 출새시의 수용과 변이」, 『동방한문학』 62집(2015), 259-267쪽 참조.

생활상, 군영에서 생활하는 병사들의 모습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낙빈왕은 여러 수의 변새시를 남겼는데, 「변성낙일(邊城落日)」, 「조추출새기동대의정학사(早秋出塞寄東臺議政學士)」, 「숙온성망군영(宿溫城望軍營)」 등의 작품이 그 대표작이다. 진자양은 「송별출새(送別出塞)」, 「화륙명부증장군중출새(和陸明府贈將軍重出塞)」 등 주로 변방으로 떠나는 인사에게 주는 증별시가 많다. 성당(盛唐) 시대에는 변새시의 전성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작가와 작품이 생산되었다. 문학사에서 소위 '변새시파'라고 불리는 시인들도 대체로 이때의 인물들이다. 예컨대 잠삼(岑參), 고적(高適), 왕창령(王昌齡), 왕지환(王之渙), 이기(李頎), 왕한(王翰), 최호(崔顥) 등이 그들이다. 위의 낙빈왕, 진자양부터 잠삼 이하 왕한, 최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인들의 공통된 특징은 일찍이 서역을 비롯한 변방 지역으로 종군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웅혼하고 강건한 기상의 변새시를 작시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젊은 날의 강렬했던 종군 체험에 기인한 바가 컸다. 그중 왕창령의 다음 시를 보자.

출새

秦時明月漢時關 진나라 때 비쳤던 밝은 달, 한나라 때도 있었던 옥문관
萬里長征人未還 만 리 밖 싸움터로 나간 병사들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네
但使龍城飛將在 다만 용성으로 쳐들어간 비장군(飛將軍)만 있다면
不教胡馬度陰山 오랑캐 말들이 음산을 넘어오게 두지는 않으련만⁷⁾

위의 시는 왕창령의 칠언절구의 2수로 된 연작시 중 앞의 작품이다. 사실 당시(唐詩) 가운데 “출새(出塞)”라는 시제를 가진 작품은 왕창령의 시 외에도 심건기, 진자양, 왕유의 작품도 있을 정도로 많은 시인들이 즐겨 작시했던 시제이다. 기구(起句)에서 시인은 옥문관에 뜬 달을 바라보면서 변방의 달과 옥문관은 진나라 때나 한나라 때나 지극(唐)도 동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승구(承句)에서 “만 리 밖 싸움터로 나간 병사들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네”라고 하여 전장에 나가 전사한 병사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자연은 변함이 없지만 그 속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것이다. 전구(轉句)와 결구(結句)는 변새시에 자주 등장하는

7) 王昌齡, 『樂府詩集』 권21, 「出塞」.

특유의 호기(豪氣)와 기상을 보여준다. 3구의 “비장군(飛將軍)”은 한무제 때 유명한 장군 이광(李廣)을 지칭하는데, 흉노들이 그의 용맹과 날래움을 가리켜 “비장군”이라 불렀다고 한다. 시인은 이광 같은 용맹한 장군이 다시 나타난다면 제아무리 오랑캐가 거세게 쳐들어온다 해도 모두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이광 같은 용감한 장군을 간절히 기대하는 바램이자 동시에 전장을 지키는 군사들에 대한 격려와 독려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성당의 변새시 창작 경향은 단지 변새시파의 시인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가령 이백, 두보, 왕유 같은 대가들의 경우에도 많은 변새시를 남길 만큼 이 시기에 변새시 창작은 일반화된 하나의 유행이었다. 그 후 변새시는 중당·만당을 거쳐 송, 원, 명, 청에 이르기까지 중국시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졌고, 한시사의 중요한 흐름이자 유파로 이어지게 되었으며,⁸⁾ 이같은 중국문학사 상에서 변새시의 유행과 발전은 우리 문학사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한국한시사에서 변새시의 출발은 이규보(李奎報, 1168-1241)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규보는 1202년 경주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병마록사 겸수제원(兵馬錄事兼修製員)이 되어 종군하였다. 이규보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 많은 변새시를 짓게 되었는데, 예컨대 「임술동십이월(壬戌冬十二月), 종정동막부행차천수사(從征東幕府行次天壽寺), 음중증전객(飲中贈餞客)」, 「막중서회시동영제공(幕中書懷示同營諸公)」 등 『동국이상국집』 권12에 수록된 시들 중 변새시적 성격이 잘 드러난 작품만도 대략 10여 수가 된다. 그의 다음 시를 보자.

임술년 겨울 십이월에 정동막부(征東幕府)를 따라 천수사(天壽寺)에 도착하여 술 마시는 자리에서 전객(餞客)들에게 주다

平生不折春蠶股 평생에 메뚜기 다리도 건드리지 않았건만
 今日將抽乳虎牙 오늘엔 유호(乳虎)의 어금니를 뽑으려 하네
 破賊朝天參御宴 적 평정하고 어연에 참여하면

8) 예컨대 中唐의 白居易, 李賀를 비롯해 宋의 王安石, 蘇軾, 黃庭堅, 陸游, 明의 黎民表, 王世貞, 胡應麟에서 淸나라 毛奇齡에 이르기까지 변새시는 당대 최고의 시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작시되어왔다. 특히 왕세정과 호응린은 변새시 창작에 각별한 애착을 갖고 수십 수의 작품을 남겨 잠삼 등 변새시파 이후의 시인들 중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紫微宮裏挿宣花 왕궁 안에서 어사화 꽃게 되리
 紅旗白刃討黃巾 붉은 깃발 날카로운 칼로 황건적 토벌하는데
 膽怯書生忝幕賓 담력 없는 서생이 막빈으로 참여했네
 楯墨何曾乾一日 먹물이 어찌 하루인들 마를 것인가
 東江水盡必生塵 동강의 물 말라 티끌이 일걸세⁹⁾

1202년 12월 경주 지역에서 민란이 일어나자 이규보는 35세의 나이로 이를 토벌하는 군대의 참모 겸 서기로 참전하였는데, 인용시는 아마도 군대가 개성 동남쪽에 있었던 천수사¹⁰⁾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는 군막에서 지은 작품으로 보인다. 시체의 “전객들”이라는 단어 또한 이 시가 군대의 전별연 자리에서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동막부”는 경주 반란을 토벌하라는 명을 받고 떠난 김척후(金陟侯), 최광의(崔匡義), 강순(康純) 장군 등을 지칭한다.¹¹⁾ 이규보는 수련에서 평생 메뚜기 다리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유약한 서생으로 살아오다가 호랑이 같은 적군을 잡으려 출전하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함련에서는 적군을 토벌하고 돌아오면 받게 될 영예와 상을 기대하며 용기를 내어 출전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는 다만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군대에 속해 있던 모든 군인들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다. 경련의 “붉은 깃발(紅旗)”, “날카로운 칼(白刃)” 등은 변새시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의상(意象)으로 적을 토벌하러 떠나는 군대의 늠름한 기상과 위용을 보여준다. 마지막 미련에서는 서기관으로 출전한 시인이 군대의 승리 소식을 쉽 없이 써야 할 정도로 이번 토벌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비치고 있다. 이같은 종군의 체험과 기상은 변새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이를 통해 13세기 고려 문단에 당대(唐代)와 송대(宋代)에서 유행했던 변새시의 기법이 이미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규보를 이은 변새시의 작가는 지포(止浦) 김구(金丘, 1211-1278)이다. 김구의 문집인 『지포집(止浦集)』에 실린 시들 중 「출새(出塞)」, 「과서

9)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권12, 「壬戌冬十二月, 從征東幕府行次天壽寺, 飲中贈錢客」.
 10) 시체에 나와 있는 천수사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을 검색해보면 개성 동남쪽에 있었던 사찰 한 곳 밖에 없다. 천수사는 天壽院에 딸린 절로 이곳은 당시 교통의 요지이자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이규보가 속한 막부의 군대는 개성에서 출발하여 잠시 이곳에 들러 여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11) 당시의 반란과 이를 토벌하는 군대의 구성에 대한 것은 『高麗史』, 「世家」 권21을 참조할 것.

경(過西京), 「과철주(過鐵州)」 같은 시들은 변새시에 속하는 작품인데, 아마도 1240년(고종 27) 김구가 서장관으로 원나라에 갈 때 변방을 지나며 지은 시로 보인다. 김구에 이어 홍간(洪侃, ?-1304) 역시 변새시를 남겼다. 그의 「새상곡(塞上曲)」¹²⁾은 왕창령 등 성당(盛唐) 변새시파 시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시제와 동일하며 송대(宋代)에서도 육유, 구양수 등의 시에도 보이는데, 한국한시사에서 “새상곡”의 시제를 그대로 딴 것은 홍간의 작품이 최초이다. 이후 조선조로 가면 성현, 이안눌, 정두경 등 많은 시인들이 이를 원용하여 작시하였다. 변방의 고즈넉하고 쓸쓸한 풍광과 이국적인 호적 소리 등을 묘사한 성당 변새시의 전형을 답습하고 있는 작품이다. 14세기에 들어서는 이달충(李達衷, 1309-1385)이 변새시를 계승하였다. 그는 1358년(공민왕 7)에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가 되어 함경도 외곽지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이때의 경험을 시로 남기고 있다.¹³⁾ 이달충을 이어 목은 이색 역시 동북면함경도 지역으로 떠나는 인사를 전송하며 시를 지었는데,¹⁴⁾ 비록 본인이 직접 변방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새외의 풍광과 정서를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광의의 변새시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포은 정몽주는 평생을 사행과 종군으로 보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변방과 전장의 체험을 가졌다. 정몽주는 문인이었지만 젊은 시절부터 줄곧 전쟁에 참여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1363년(공민왕 12) 포은 나이 27세 되던 해에 동북면도지휘사(東北面都指揮使) 한방신(韓方信)의 종사관(從事官)으로 화주(和州)에서 여진과 전투를 벌인 것이 첫 출정이었다. 그 후 1380년(우왕 6) 44세에 조전원수(助戰元帥)의 직책으로 이성계를 따라 전라도 운봉에서 왜구와 전투를 벌여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1383년(우왕 9) 47세 때에는 동북면조전원수(東北面助戰元帥)가 되어 다시 이성계를 따라 여진 정벌전투에 참여하였다.¹⁵⁾ 따라서 변새시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도 많이 남겼는데 그중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갑진중추유회(甲辰中秋有懷)」, 「정주중구한상명

12) 홍侃, 『洪崖遺稿』, 「七言古詩」 수록.

13) 가령 「咸州樓上作」(『霽亭集』 권1) 같은 작품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4) 예컨대 「送東北面韓萬戶得月字」(『牧隱集』 권4)라든지 「鄭簽書病, 僕亦病, 兩家絕往來久矣. 李浩然來曰, 明日簽書啓行, 赴東北面元帥府也. 將出郊相送艱於騎馬, 坐吟一首, 歸來當歌以勞之」(『牧隱集』 권34)와 같은 작품들을 들 수 있다.

15) 이상에 대한 사항은 『圃隱集』 권4에 실린 「年譜攷異」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부(定州重九韓相命賦), 「숙의순관기공부(宿義順館寄孔俯)」, 「등전주망경대(登全州望景臺)」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의 두 작품은 함경도에 종군했을 때의 작품이고, 「숙의순관기공부(宿義順館寄孔俯)」는 중국 사행 도중 최북단 변경인 의주에서 쓴 것이며, 「등전주망경대(登全州望景臺)」는 전라도 운봉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쓴 것으로 모두 변세시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포은을 이어 여말선초를 대표하는 변세시 작가는 양촌 권근이다. 양촌은 1387년(우왕 13)과 1388년에 고려의 서북쪽 변방인 서북면(西北面)에서 점마(點馬)하고 또 서도(西都)에 종군하였는데, 점마란 군영이나 지방 관아, 또는 목장의 말을 점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문집인 『양촌집』에는 이때의 경험을 따로 「점마행록(點馬行錄)」이라고 하여 수십 수의 변세시로 남기고 있어 양촌을 당대 최고의 변세시 작가라고 규정할 수 있다.

조선조에 들어서면 변세시는 가히 폭발적인 양적 증가를 보이며 수많은 변세시 작가가 나오게 된다. 선초의 대표적 작가는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이다. 그는 1460년(세조 6) 함길도 도체찰사(咸吉道都體察使)가 되어 야인(野人)들을 접할 기회를 가졌는데, 도체찰사란 조선시대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의정부에 준하는 직급에서 뽑아 임명하던 임시 관직으로 파견 지역의 군정(軍政)과 민정(民政) 모두를 총괄하였으며 대체로 정1품의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¹⁶⁾ 신숙주는 1458년에도 평안도도체찰사로 임명된 경험이 있었기에 그의 문집인 『보한재집(保閑齋集)』에는 변방 지역을 순시하며 보고 느낀 변세시가 수십 수에 이른다.¹⁷⁾ 신숙주 외에도 15세기 문인들 중 대표적인 변세시 작가로 강희맹(姜希孟, 1424-1483),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이승소(李承召, 1422-1484), 홍귀달(洪貴達, 1438-1504), 정수강(丁壽崗, 1454-1527) 등을 꼽을 수 있다. 강희맹은 「출새편(出塞篇)」 5수¹⁸⁾를 비롯해 「등통군정차조태허운(登統軍亭次曹太虛韻)」·「차의주관상운이수(次義州板上韻二首)」¹⁹⁾등과 같은 시를 남겼는데, 뒤의 시들은 모두 의주에서 지은 것이며 특히 「차의주관상

16) 이상 도체찰사에 대한 사항은 『한국고전용어사전』2(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294쪽 참조.

17) 예컨대 「在穩城偶吟」(『保閑齋集』 권2), 「次咸興東軒韻」(『保閑齋集』 권4), 「寄咸吉從事官」(『保閑齋集』 권6)등 다수가 보인다.

18) 姜希孟, 『私淑齋集』 권3.

19) 姜希孟, 『私淑齋集』 권2.

운이수(次義州板上韻二首)는 칠언율시인데, 같은 제목으로 된 칠언절구도 5수가 더 있다. 서거정은 「송영안도이절도(送永安道李節度)」,²⁰ 「우수길성김태수(又酬吉城金太守)」,²¹ 「서주(瑞州)」²² 등과 같은 변새시를 작사하였다. 이승소는 1457년(세조 3)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의주에 나아가 종사관으로 접빈하였는데, 그때 본 의주의 풍광을 시로 남긴 것이 있다.²³ 홍귀달은 1481년(성종 12)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중국으로 사행을 갔는데, 이때 변방에서 견문한 것을 작시한 것이 「안주차전의군운기여이절도유별(安州次全義君韻寄與李節度留別)」, 「배률이십운사양변역승(排律二十韻謝陽樊驛丞)」²⁴과 같은 작품들이다. 또한 「용김계온운송춘당선생부영안절도사막하(用金季溫韻送春塘先生赴永安節度使幕下)」²⁵ 같은 작품은 함경도로 부임하는 인사에게 주는 송시(送詩)이지만 변새시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시기 변새시의 작가 중 가장 주목할 시인은 정수강이다. 그는 1481년(성종 12)에 정조사(正朝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가면서 변방의 풍광을 시로 읊었으며, 또 2년 후인 1483년(성종 14)에는 북평사(北評事)의 종사관이 되어 변방을 경험했기에 이때의 경험 역시 시화(詩化)되어 변새시를 남기게 되었다. 그의 문집인 『월헌집(月軒集)』에는 여러 수의 변새시가 실려 있는데, 그중 「경원문루야음차사운(慶源門樓夜飲次使韻)」,²⁶ 「차회녕남성루운(次會寧南城樓韻)」²⁷ 같은 작품들은 함경도의 이국적인 풍광과 변새의 고즈넉하고 쓸쓸한 심회를 그린 명작이다.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는 기준(奇遵)과 민제인(閔齊仁), 차천로(車天輅), 유몽인(柳夢寅), 이수광(李睟光), 허봉(許筠), 허난설헌(許蘭雪軒), 이정구(李廷龜), 신흘(申欽), 이안눌(李安訥), 이민구(李敏求), 박세당(朴世堂), 이정석(李景奭), 정두경(鄭斗卿), 김세렴(金世濂), 김만중(金萬重), 김창흡(金昌翕), 홍세태(洪世泰) 등의 시인들이 변새시의 계보를 이어갔다. 이중 가장 주목할 시인으로는 기준(1492-1521), 민제인(1493-1549), 차천로(1556-1615), 허난설헌(1563-1589), 이수광(1563-1628), 이안눌(1571-

20) 徐居正, 『四佳集』 권45.

21) 徐居正, 『四佳集』 권21.

22) 徐居正, 『四佳集』 권7.

23) 가령 「贈經歷安同年」(『三灘集』 권2)과 같은 작품이 그것이다.

24) 洪貴達, 『虛白亭集』 권4.

25) 洪貴達, 『虛白亭集』 권3.

26) 丁壽崗, 『月軒集』 권1.

27) 丁壽崗, 『月軒集』 권3.

1637), 박세당(1629-1703)을 꼽을 수 있다. 기준은 기묘사회에 연루되어 1520년(중종 15) 함경도 온성(穩城)으로 유배되었다가 그 다음해 30세의 나이에 결국 사사(賜死)되었는데, 이때의 경험이 많은 시편으로 시화되었다. 「온성팔영(穩城八詠)」,²⁸⁾ 「문적(聞笛)」,²⁹⁾ 「회향(懷鄉)」,³⁰⁾과 같은 시가 그것이며 특히 「새상가(塞上歌)」·「새상협소가(塞上俠少歌)」³¹⁾ 같은 작품은 변새시의 전형을 보여주는 수작이라 할만하다. 일반적으로 변새시는 출사(出仕)나 종군, 사행, 혹은 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짓는 것이 보통이나 기준의 경우에는 적소(謫所)에서 지은 유배시로 매우 흥미로운 경우라 할 수 있겠다. 민제인은 1539년(중종 34) 평안도 정주별선위사(定州別宣慰使)가 되어 명의 사신을 영접하였고, 또 1542년(중종 37)에는 평안도관찰사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변방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의 문집 『입암집(立巖集)』에 전하는 「정부탄(征夫歎)」,³²⁾ 「등록반연대망백두산(登綠攀煙臺望白頭山)」,³³⁾ 「문오제유감(聞烏啼有感)」³⁴⁾과 같은 작품들이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차천로는 여러 수의 변새시를 지었는데, 특히 「상형군문시(上邢軍門詩)」³⁵⁾는 1596년(선조 29) 정유재란 때 명나라에서 파견한 총독 형개(邢玠)에게 함경도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원군(援軍)에 대한 감사와 명군(明軍)의 용맹을 기린 것이며, 「송애주부윤(送愛州府尹)」³⁶⁾은 장편의 칠언배율(七言排律)로 의주 지역의 풍광과 역사, 부임하는 부윤에 대한 위로 등이 차천로 특유의 박식함과 시재(詩才)에 힘입어 잘 드러나 있다. 허난설헌은 스승인 이달, 오빠 허봉의 영향을 받아 변새시를 짓게 된 것으로 보이며,³⁷⁾ 특히 칠언절구로 된 5수의 연작시인 「새하곡(塞下曲)」³⁸⁾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어우러져 남성 시인들의 변새시와는 또 다른 시취를 지어낸다.

28) 奇遵, 『德陽遺稿』 권2.

29) 奇遵, 『德陽遺稿』 권3.

30) 奇遵, 『德陽遺稿』 권2.

31) 奇遵, 『德陽遺稿』 권2.

32) 閔齊仁, 『立巖集』 권5.

33) 閔齊仁, 『立巖集』 권3.

34) 閔齊仁, 『立巖集』 권5.

35) 車天輅, 『五山集·續集』 권3.

36) 車天輅, 『五山集』 권4.

37) 이달과 허봉의 문집에도 「塞下曲」등의 변새시가 여러 수 보이는 바 허난설헌의 창작은 이들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8) 許楚姬, 『蘭雪軒詩集』.

이수광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함경도 선유어사(宣諭御史)가 되어 변방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고, 또한 1604년(선조 37)에서 1606년까지 함경도 안변부사(安邊府使)로 재임하였으며 3차례나 명에 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변방의 풍광과 지리, 군대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문집인 『지봉집』 권12에 「학성록(鶴城錄)」이라는 제명으로 여러 수의 변새시가 있고 또 「새하곡」을 5제 14수나 쓴 것도 이에 기인한다. 또한 지봉의 아들인 동주(東州) 이민구(李敏求) 역시 문집에 「종군록(從軍錄)」, 「철성록(鐵城錄)」을 편차하여 변새시를 수록했는데 이는 다분히 부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안눌은 1599년(선조 32) 함경도 병마평사(兵馬評事)가 되어 경성(鏡城)을 둘러본 것을 시작으로 1601년 원접사 종사관이 되어 의주(義州)를 다녀왔고, 1602년에는 재상안핵어사(災傷按覈御史)가 되어 평안도 용강(龍岡)과 태천(泰川) 등을 돌았으며, 1607년(선조 40)에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가 일어난 동래부사로 재임하였다. 1623년(인조 1)에는 사문퇴진급사관 영위사(查文賚進及查官迎慰使) 겸 모도독문안사(毛都督問安使)가 되어 관서(關西)의 철산(鐵山)과 피도(皮島)에 갔으며 다음해인 1624년에는 함경도 경성부(鏡城府)로 유배(流配)를 당하였다. 또한 1631년(인조 9)에는 함경도관찰사가 되기도 하는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변방 체험을 하였다. 그가 문집인 「동악집」 권1에 「북새록(北塞錄)」을 따로 편찬하여 「종군행(從軍行)」 등의 변새시를 모아 놓은 것도 다양한 변방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박세당은 1666년(현종 7)에 함경도 병마평사(兵馬評事)가 되어 경성(鏡城)에 부임하였고, 또 1668년에는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연경에 다녀왔으며, 1688년(숙종 14)에는 함경도 순영(巡營)에 가서 부친과 조부의 연시례(延諡禮)에 참석하는 등 함경도를 비롯한 변방 지역을 수차례 다닌 경험으로 변새시를 짓게 되었다. 그의 문집 『서계집(西溪集)』에는 「북정록(北征錄)」과 「사연록(使燕錄)」이 편차되어 있는데, 북정록은 1666년 함경도 병마평사로 있으면서 지은 시이며, 사연록은 절사(節使) 서장관으로 북경을 다녀오면서 지은 시들이다. 「서수라(西水羅)」,³⁹⁾ 「회녕노중(會寧路中)」,⁴⁰⁾ 「새하곡(塞下曲)」⁴¹⁾ 등은

39) 朴世堂, 『西溪集』 권1.

40) 朴世堂, 『西溪集』 권1.

41) 朴世堂, 『西溪集』 권2.

모두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어진 변새시이다.

한국한시사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18-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사이는 정범조(丁範祖), 김득신(金得臣), 이헌경(李獻慶), 홍양호(洪良浩), 조면호(趙冕鎬), 이덕무(李德懋), 유득공(柳得恭), 이언진(李彦瓚), 조수삼(趙秀三), 김매순(金邁淳), 황현(黃玹)이 있다. 이중 주목할 시인으로는 이른바 중인 혹은 서얼 출신의 여항시인들인 이덕무(1741-1793), 유득공(1748-1807), 이언진(1740-1766), 조수삼(1762-1849) 등과 한문학사의 마지막 작가세대에 해당하는 황현(1855-1910)이다. 이덕무는 1778년(정조 2)에 연경으로 가서 청나라 문인들과 교류를 나누었는데, 이때 체험한 변방의 기억을 「새하곡」⁴²⁾ 3수로 남기고 있다. 유득공은 1778년 사신을 따라 중국에 건너가서 심양을 유람하였고, 1790년(정조 14)에는 진하부사(進賀副使) 서호수(徐浩修)의 종관(從官)으로 박제가와 함께 연경에 갔으며, 1801년(순조 1)에도 역시 사은사를 따라 연경(燕京)에 가는 등 수차례의 사행 경험을 바탕으로 「통군정(統軍亭)」,⁴³⁾ 「용만대수행봉별철재정학사(龍灣太守行奉別徹齋鄭學士)」,⁴⁴⁾ 「요야(遼野)」⁴⁵⁾와 같은 변새시를 남기게 되었다. 이언진은 27살의 나이로 요절한 역관시인인데, 그의 시적인 천재성은 박지원이 「우상전(虞裳傳)」을 통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만큼 이미 동시대 문인들도 인정하는 바였다. 특히 칠언율시로 이뤄진 5수의 연작시 「새하곡」⁴⁶⁾은 전형적인 변새시적 풍모를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조수삼은 무려 6차례에 걸쳐 연행(燕行)을 했고, 1811년(순조 11) 용천(龍泉)을 비롯한 관서(關西) 지방을 유람했으며, 1813년에는 청해종사(靑海從事)로 군저(軍儲)를 안찰(按察)하고 함경도를 유람하였다. 또 1821년(순조 21)에는 평안도에서 막부(幕府)의 참군(參軍)으로 재직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200여 일간 함경도를 유람하였으며, 1823년(순조 23)에는 정주(定州)의 신안관(新安館)에서 지난해의 유람을 회고하며 「북행백절(北行百絶)」⁴⁷⁾을 짓는 등 수차례의 종군과 유람을 통해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를 살살이 살펴볼 수 있었다. 「고원관우야(高原館雨

42) 李德懋, 『靑莊館全書』, 「嬰處詩稿」 2.

43) 柳得恭, 『冷齋集』 권3.

44) 柳得恭, 『冷齋集』 권3.

45) 柳得恭, 『冷齋集』 권3.

46) 李彦瓚, 『松稷館餘稿』, 「칠언율시」.

47) 趙秀三, 『秋齋集』 권3.

夜)」,⁴⁸⁾ 「고새상행(古塞上行)」,⁴⁹⁾ 「새하곡(塞下曲)」⁵⁰⁾ 등은 이같은 체함을 바탕으로 작시된 것들이다.

이상 살펴본 이덕무, 유득공, 이언진, 조수삼 등 소위 여항시인들이 자신의 시재(詩才)를 발휘하며 변새시 창작에 열정을 쏟은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시의 많은 장르 중 변새시가 자신들의 시재와 기질, 정서 등을 드러내기에 적합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이언진이 쓴 「새하곡」에는 “호천(胡天)”, “고각(鼓角)”, “음마(飲馬)”, “전지(戰地)”, “관외(關外)”, “사변(沙邊)”, “검가(劍歌)” 등과 같은 변새시의 의례적인 의상(意象)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장취(長醉)”, “고객(孤客)”, “비명(悲鳴)”, “만풍(晚風)”, “누락(淚落)”과 같은 매우 감성적이면서도 불우하고 울분에 찬 자신의 모습을 암시하는 시어들이 시의(詩意)를 전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변새시는 여항시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20세기까지 한시 작가로 활동한 한문학 마지막 세대 시인인 황현의 변새시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황현은 1910년(순종 4) 망국의 소식을 듣고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새하곡기박금사자성임소(塞下曲寄朴錦士慈城任所)」,⁵¹⁾ 「토동우중문금사장발부삼절구각기(兔洞雨中聞錦士將發賦三絕句却寄)」, 「부삼절구각기(賦三絕句却寄)」,⁵²⁾ 「간금사자성임소(東錦士慈城任所)」⁵³⁾ 등의 변새시를 남겼는데, 「새하곡」은 4수, 「토동우중문금사장발부삼절구각기(兔洞雨中聞錦士將發賦三絕句却寄)」는 3수, 「간금사자성임소(東錦士慈城任所)」는 4수의 연작시로 도합 3제 11수이고, 3제 모두 평안북도 자성군 수령으로 떠난 금사(錦士) 박항래(朴恒來)에게 준 시다. 이상으로 중국시사에서 변새시 창작 전통의 흐름과 주요 작가, 그리고 고려조 이규보로부터 한말의 황현에 이르기까지 한국한시사에서 변새시의 창작 양상과 주요작가 및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변새시는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시사의 주요 장르이자 시인들이 각자의 다양한 의미를 담아 즐겨 작시했던

48) 趙秀三, 『秋齋集』 권2.

49) 趙秀三, 『秋齋集』 권2.

50) 趙秀三, 『秋齋集』 권3.

51) 黃玪, 『梅泉集』 권3.

52) 黃玪, 『梅泉集』 권3.

53) 黃玪, 『梅泉集』 권3.

것을 알 수 있었다.

III. 어촌의 변세시에 나타난 객창감(客窓感)과 호기(豪氣)

16세기 변세시 작가 중 단연 주목할 사람은 어촌 심언광이다. 이는 물론 작품의 분량이나 질적 수준의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그의 문집인 『어촌집』 수록 첫 번째 시가 「옥문관시(玉門關詩)」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러하다. 사실 「옥문관시」는 장편의 칠언고시로 어촌이 21세 때인 1507년(중종 2) 치러진 진사시에 제출했던 시인데,⁵⁴⁾ “옥문관”은 주지하다시피 한무제 때 수축한 서역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어촌이 환로의 첫걸음을 변세시로 시작했으며, 또 평생을 변세시 창작에 심혈을 기울였던 사실을 문집의 첫 번째 시이자 진사시에 합격한 이 시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촌집』에 수록된 권4의 「서정고」와 권5의 「북정고」는 각각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관 시절 작시된 것으로 어촌 변세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분량만 해도 약 259수에 이른다. 물론 이 중에는 영물시나 차운시, 만시 등 변세시로 보기 힘든 작품들도 상당수 있기에 259수 전체가 변세시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양적인 면에서 어촌은 다른 시인들보다 압도적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작법이나 표현기법, 다양한 의상의 활용, 시의 주제 등 질적인 수준 역시 매우 완성도가 높아 어촌을 한국한시사에서 변세시의 주요한 작가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특히 어촌의 변세시에는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장편의 고시(古詩)가 매우 많은데, 고시 가운데는 변방의 풍광과 함께 변방에 임하는 시인의 복잡한 정서를 회고조, 혹은 서술조로 잘 드러낸 작품들이 주목된다.

어촌의 변세시에 주로 등장하는 의상(意象)은 뿔피리나 호적(胡笛)과 같은 악기 소리, 석양·노을·달빛과 같은 빛, 산성·요새·군막·병사·군기(軍旗)와 같은 군영(軍營), 민가·전답·농민·풍토병과 같은 변방의 풍광, 용천검을 비롯한 검, 고향·가족·어머니와 같은 향수, 나그네·거리기 같은 떠돌 혹은 정처 없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성당의

54) 문집의 연보를 보면 선생은 21세 때 진사시에 응시하여 「옥문관시」를 써서 1등 제4로 합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은 『어촌집』 권수, 「연보」를 참조할 것.

변새시파 시인들이나 송대의 변새시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의상군(意象群)으로 어촌시는 변새시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어촌의 경우 워낙 많은 변새시를 창작했기에 앞의 제 2장에서 기술했던 한국한시사에 등장하는 어떤 시인들보다 다채롭고 다양한 시적 특질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시에는 변방의 풍광과 풍속 등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숙녕관 시에 차운하다

殘雪漫山悽歲陰	잔설이 산에 질펀하니 한 해가 저물어 감을 깨닫고
天涯愁思更難禁	변방에서 드는 수심에 겨운 생각 다시 금하기 어렵네
千年古國荒涼地	천 년이나 오래된 국토는 황량한 땅이 되었으니
萬里征天感慨心	먼 길 가는 여정에 탄식을 하게 되네
大野春雲驚瘴癘	넓은 들관의 봄 구름을 보며 풍토병 걱정하며
異方民俗見謳吟	노래하는 이역의 풍속을 바라보네
終南何處頻回首	종남산은 어디에 있나 자주 머리 돌리는데
目極飛鴻度遠岑	눈 들어 바라보니 날아가는 기러기 멀리 산봉우리 넘어가네 ⁵⁵⁾

위 시의 “숙녕관”은 조선시대 평안도 숙천(肅川)에 있었던 객관(客館)으로 이 시는 어촌이 1536년 평안도경변사(平安道警邊使)로 나갔을 때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시제에서 “숙녕관 시에 차운”한다고 했으니 숙녕관 현판에 걸린 시에 차운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전기 서거정의 시에도 「차만등숙녕관운(次晩登肅寧館韻)⁵⁶⁾이 보이는데 운자가 금(禁), 심(心), 음(吟), 잠(岑)으로 위의 시와 같음을 볼 때, 서거정 역시 숙녕관 현판 시에 차운했음을 알 수 있다. 수련(首聯)에서 “한 해가 저물어” 간다고 했으니 1536년 12월의 어느 날 무렵일 것이다. 때는 겨울에서 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곳 변방의 산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다. 시인은 변방에서 세밑을 지내는 심정을 제 2구에서 “수심에 겨운 생각 다시 금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수심에 겨운 생각(愁思)”은 사실 어촌 변새시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함련은 변방의 황량한 풍광을

55) 沈彦光, 『漁村集』 권4, 「次肅寧館韻」. 앞으로 본고에서 사용하는 어촌의 한시 번역문은 『국역 어촌집』(강릉문화원, 2006)의 번역문을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필자가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56) 徐居正, 『四佳集·補遺』 2.

묘사한 것이다. 이곳은 고구려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천 년이나 오래된 국토”지만 이제는 한낱 “황량한 땅(荒涼地)”이 되고 말았다. 시인은 앞으로의 머나먼 여정에 이같은 황량한 땅이 계속될 것을 생각하며 자기도 모르게 탄식을 한다. 그런데 사실 땅만 황량한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또 있다. 경련에서 시인은 “풍토병(瘴癘)”을 걱정한다. 모든 환경이 낯설고 물이나 음식 등도 맞지 않을 수 있다. 그곳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육체적 질병을 얻게 될 것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러한 환경과 음식, 기후,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이역의 풍속이다. 마지막 미련은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 서울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인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종남산이 있는 서울 향해 자주 머리를 돌려보지만 보이는 것은 저 멀리 산을 넘어 날아가는 기러기 들뿐이다. 여기에서 시인은 매우 대조적인 두 가지 의상을 대비시킴으로써 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즉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기러기와 원하지 않는 변새를 향해 가는 시인, 이를 좀 더 확대하면 자유로운 기러기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시인의 모습이 대비되어 있다. 이같은 시적 결말은 지금 시인이 그만큼 서울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위의 인용시는 변새에서 생활하는 어려움이나 고통들, 예컨대, 낯선 환경이나 풍속에 대한 부적응, 풍토병, 향수에 이르기까지 실제 변새의 삶에서 접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겠다.

영변의 객관에서 밤에 앉아

鎮西樓下駐旌旗	진서루 아래 깃발 꽂혀 있으니
此地由來近北夷	이곳이 북쪽 오랑캐와 가깝기 때문이지
冠帶土官皆質質	사모관대로 차려입은 지역의 관리들 교양이 없고
絲麻民俗尙蚩蚩	삼베옷 입는 백성들의 풍속 아직도 무지하다네
千年鐵釜天應鑿	오래된 철옹성은 하늘까지 닿을 듯
百雉金城敵莫窺	백 척이나 되는 견고한 성 적이 넘보지 못하네
聖代右文兵事少	태평성대엔 문을 중시하여 병사를 가볍게 여기니
儒冠猶解俠書詩	선비들은 오로지 시서만 끼고 읽는다네 ⁵⁷⁾

57) 沈彦光, 『漁村集』 권4, 「寧邊館夜坐」.

이 시는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변방의 풍광과 지역 백성들의 풍속을 말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다. 시체에 기록된 영변의 객관은 철옹관(鐵甕館)을 의미한다. 이곳은 영변읍의 중심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영변대도 호부의 관아였다. 시인은 지금 철옹관의 객사에 앉아 밤이 늦도록 생각에 잠겨 있다. 수련은 철옹관에 대한 묘사이다. 1구의 “깃발”은 아마도 전장(戰場)에서 흔히 보이는 ‘帥’자 깃발일 것이다. 군영이 아닌 도호부의 객사에 ‘帥’자 깃발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이곳이 적군과 가까운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함련은 이 땅의 풍속에 대한 것이다. 관리들은 사모관대로 차려입었지만 교양과 학식이 없다. 또한 백성들은 삼베옷을 입고 있으나 무지하기 그지없다. 요컨대 겉모습은 문명의 흉내를 냈으나 그 실체는 교양 없고 무식하여 변방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련은 영변성에 대한 기대와 찬탄이다. 5구의 “철옹성”은 영변 객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곳을 적이 넘볼 수 없다는 중의적 표현이다. “하늘까지 닿을 듯한 철옹성”과 “백 척이나 되는 견고한 성”은 평안도경변사(平安道警邊使)로 온 시인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굳건한 성에라도 의지하고 싶은 시인의 바램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경변사란 국경에 사건이 있을 때 임금의 특명으로 보내는 관리를 말하는데 주로 함경도나 평안도 지역에 많이 파견되었다. 임시직으로서 대신 등 관계(官階)가 높은 관원 중 변방의 일을 주관할 만한 지략이 있는 사람을 파견하였으며, 비단 군사(軍事)만이 아닌 변방 백성들의 구휼(救恤) 등 파견된 지역에 대한 행정권의 일부까지 함께 갖는다.⁵⁸⁾

마지막 미련을 보면 시인의 심정이 그대로 표출되어 있다. 조선조는 개국 후 약 150여 년간 큰 전쟁 없이 태평성대를 보내왔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병사를 가볍게 여기”는 폐단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시인은 “선비들은 오로지 시서(詩書)만 끼고 읽는다”고 탄식한다.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지나치게 문과(文科)만 중시하는 태도를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이 시가 작시된 후 불과 50여 년이 지난 후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신이지만 국방과 군사에 관심이 많은 어촌의 가치관을 읽어낼 수 있으며 동시에 평안도경변사로서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58) 『한국고전용어사전』 1(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316쪽 참조.

만포에서 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다

窓外三竿日 창밖으로 세 줄기 햇살 비치는데
城門尙未開 성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았네
關防江作界 관문과 요새는 강으로 경계를 삼고
烽燧石爲臺 봉수대는 돌로 쌓아 만들었네
苦戍常戈甲 고단한 수자리 병사들 항상 창과 갑옷을 입고 있고
荒田半草萊 황폐한 전답은 반이나 풀로 무성하네
孤墟保朝暮 아침 저녁으로 외로운 성을 지키노라면
民事最堪哀 백성들의 일이 가장 애처롭다네⁵⁹⁾

이 시 역시 평안도경변사 시절 지은 것이다. 만포는 평안도 압록강가에 위치한 중국과의 국경 도시이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칠 정도로 평소보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지만 성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만큼 사람이 드문 국경 도시는 하루도 늦게 시작한다. 함련과 경련은 국경 지대의 풍광이다. 중국과의 관문은 압록강이 자연스런 경계가 되고, 또 그 자체가 험준한 요새이다. 돌로 만들어 세워진 봉수대는 이곳이 변방의 군사 지역임을 알게 해준다. 함련이 자연 경관에 대한 묘사라면 경련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이다. 변방의 중심인물은 그곳을 지키는 병사들이다. 수자리 서는 병사들은 항상 창을 들고 갑옷을 입은 채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 시인은 이를 “고단”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실제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의 위협 속에서 항상 긴장한 채 살아간다. 또한 변방의 전답은 너무나 황폐하여 절반은 풀로 우거져 있다. 물론 이 전답은 국경지대에 설치하여 병사들이 직접 개간하게 만든 둔전(屯田)일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러하니 농사가 잘 될 리가 없고, 이 땅을 지키는 병사들은 군사(軍事)와 농사(農事)에 모두 시달려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미련에서 “백성들의 일이 가장 애처롭다”고 말한다. 어촌의 목민관으로서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이처럼 어촌시에는 변방 수령으로서의 심정을 그린 작품들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어촌의 변새시가 이처럼 모두 지방관으로서의 자기 임무에 만족하거나 충실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시인은 변방에 있는 내내 서울로 돌아가기를 소망한다.

59) 沈彦光, 『漁村集』 권4, 「宿滿浦晚起」.

황숙공에게 주다

有底詩書誤平生 어찌하여 시서로 평생을 그르쳤던가
 兜鍪猶足建功名 투구는 오히려 공명을 이루기 족했다네
 黃沙磧外秋鴻叫 황사의 벌판 밖에선 가을 기러기 울부짖고
 青海城頭夜月明 푸른 바다 바라보는 성 머리엔 밤 달이 밝다
 耿耿孤燈心萬里 깜박이는 외로운 등불아래 마음은 만 리 밖으로
 蕭蕭雙鬢雪千莖 쓸쓸한 양쪽 귀밑머리는 천 송이 눈처럼 희네
 九重北顧方霄肝 임금 계신 궁궐 바라보고 밤새도록 애간장 태우니
 那得憑君達下情 어찌하면 그대에게 부탁해 나의 심정을 임금님께 전할까⁶⁰⁾

시제의 “황숙공”은 16세기 초엽 활동한 황효헌(黃孝獻, 1491-1532)을 지칭하는데, 숙공(叔貢)은 그의 자이며 세종 때의 명신 황희의 4대손이기도 하다. 이 시는 어촌의 막하에서 부장(副將)으로 있었던 홍군(洪君)이란 자가 먼저 서울로 돌아가게 되자 그 사람 편에 황효헌에게 부친 시이다.⁶¹⁾ 시인은 제 1구에서 “자신 있던 시서로 평생을 그르쳤”다고 선언한다. 평생 유자(儒者)로서 학문에 전념했지만 서울에서 변방으로 쫓겨난 자기의 신세를 후회하고 탄식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2구에서 “투구는 오히려 공명을 이루기 족하”다고 하였다. 여기 “투구[兜鍪]”는 무신의 복장이니 즉 문신이 아닌 무신을 지칭한다. 어촌은 본인의 정치적 실패 혹은 좌절에서 벗어나 변방 수령의 임무로 공을 세워 정치적 재기를 꿈꾸고 있었던 것 같다. 함련은 변세시에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 의상이다. 누런 모래[黃沙]와 기러기, 외로운 성, 밝은 달은 모두 변방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의상들이다. 5-6구에서는 3-4구에 사용된 의상에 이어 시인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특히 5구의 “깜박이는 외로운 등불아래 마음은 만 리 밖으로”는 다분히 최치원의 「추야우중(秋夜雨中)」의 “등전만리심(燈前萬里心)”을 용사한 것으로 본인의 외로움을 강조한 것이다. 6구의 “쓸쓸한 양쪽 귀밑머리는 천 송이 눈처럼 희네”는 외로움에 늙음까지 더해진 시인의 쓸쓸한 심회이다. 그렇다면 함련은 경련을 말하기 위한 포석이자 시적인 배치이니 당시(唐詩)에 자주 사용되는 이른바 ‘선경후정(先景後情)’의 기법이다.⁶²⁾ 미련은 이 시의 주제이다. 시인은 7구에서

60) 沈彦光, 『漁村集』 권5, 「寄黃叔貢」.

61) 인용시의 말미에 “虞候인 洪君이 먼저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虞侯洪君先歸故云]”라는 自註가 보인다.

“임금 계신 궁궐 바라보고 밤새도록 애간장 태”운다고 말한다. 시인이 애간장을 태운 이유는 8구에 나타나 있는 대로, 본인의 진심을 서울에 계신 임금께 전하지 못할까 두려워서이다. 결국 임금을 향한 자신의 충심(忠心)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니 속히 경직(京職)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간절한 호소인 것이다. 시인은 자신의 이같은 진심이 알려지지 못하는 것을 매우 근심하였고, 그 근심은 객지에서의 외로움과 ‘나그네 수심(客愁)’으로 연결된다.

시절을 느끼며

新年何處見芳華	새해 어느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볼까
春晚郊原草始芽	늦봄 교외 언덕에 싹이 처음 돋았네
朔雪已消寒食雨	한식날 내린 비에 북녘 땅의 눈은 이미 녹았지만
東風未放杜鵑花	봄바람에도 두견화는 아직 피지 않았네
雲橫遠塞霾千里	구름 가득한 먼 변방엔 흠비가 내리고
鴻沒長天杳一涯	기러기는 하늘 속으로 아득히 날아가네
無限客愁眠不得	끝없는 나그네 수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幾回中夜聽悲笳	한밤중에 슬픈 호적(胡笛) 소리 몇 번이나 듣고 있나 ⁶³⁾

이 시 역시 평안도경변사 시절 지은 것이다. 시간적배경은 제 2구에서 “늦봄”이라고 했으니 시의 내용상 한식이 지난 무렵임을 알 수 있다. 1구에서 4구까지는 날짜로 보면 봄이 한창 무렵을 지났지만 이곳에서는 꽃을 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1구 “새해 어느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볼까”는 새봄이 된 뒤 아직까지 꽃구경을 못했다는 의미이다. 꽃은 피지 않고 이제 겨우 교외 언덕에서 싹이 움트고 있다. 3-4구에서 시인은 한식에 내린 비로 쌓였던 눈이 녹았지만 두견화는 아직도 피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만큼 이곳은 북녘의 변방인 것이다. 경련에서는 변새시의 대표적 의상인 ‘구름’과 ‘기러기’를 등장시켜 시인의 외로운 심정을 말하기 위한 촉매 역할로 설정하였다. 『시경』의 수법으로 말하면 이른바 ‘흥(興)’이나 ‘비(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자고로 한시사에서 구름과 기러기는 나그네, 외로움, 떠돌, 여행 등을 비유하는 말로 흔하게 사용되어

62) 당시풍 한시의 ‘선경후정’의 기법에 대한 사항은 하정승, 『고려후기 한시의 미적 특질』, 「고려후기 한시와 당풍」(박영사, 2017)을 참조할 것.

63) 沈彦光, 『漁村集』 권4, 「感時」.

왔는데, 이 시에서도 역시 시인의 나그네 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시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5구의 “가득한[柵]”과 6구의 “아득히[晝]”이다. 구름 “가득한” 하늘로 기러기가 “아득히” 날아간다. 여기 “가득한”과 “아득히”는 구름과 기러기의 존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시어이다. 그만큼 구름과 기러기로 비유되어 있는 시인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미련은 이 시의 핵심이자 시의(詩意)가 직접적으로 기술된 부분이다. 시인은 자신의 심정을 “나그네 수심[客愁]”이라 표현하고, “끝없는 나그네 수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객수[客愁]”는 어촌 변새시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시인은 서울을 떠나 먼 변방에서 생활하면서 외로움에 시달렸는데, 자신을 “나그네”로 자신의 외로움을 “객수[客愁]”로 지칭하고 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다. 지금 있는 곳도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곳이다. 실제로 어촌이 평안도경변사나 함경도관찰사로 변방의 외직에 근무한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는 수개월에 불과하였기에 자신을 나그네라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닌 사실이다. 하지만 어촌이 시에서 “나그네”를 강조한 것은 비단 외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현재 모습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가리킨다고 해도 좋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변방이 아닌 서울에 있어도 우리의 삶은 “나그네”인 것이다.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시인은 “슬픈 호적[悲笳]”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 사실 호가[胡笳]는 ‘호적[胡笛]’, ‘화각[畫角]’ 등과 함께 변새를 상징하는 악기이다. 한밤중에 듣는 피리소리는 피리소리의 실제 곡조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어떤 애잔함과 슬픔, 우수[憂愁], 수심 등을 내포한다. 시인은 나그네로서 자신의 수심이 깊다는 사실을 “슬픈 호적”에 가탁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에는 이같은 “나그네 수심”이 절정에 다다른다.

정평관의 밤비

殘城聞暮角	쇠잔한 성에 저녁 빨피리 소리 들려오니
衰鬢感秋蓬	희끗해진 귀밑머리로 정처 없는 가을을 느끼네
九月寒山雨	구월 차가운 산에 비가 내리고
三更落木風	한밤중 잎 떨어진 나무에 바람이 부네

籟鳴驚宿客 바람 소리에 잠자던 나그네는 놀라 깨고
 翅濕怨征鴻 날개 젖은 먼 길 가는 기러기 원망을 하네
 坐久窓全曙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있자니 새벽녘이 다 되어
 嘯嘯旭日紅 어슴푸레하던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네⁶⁴⁾

위 시는 함경도관찰사 시절 작시한 것인데 시제의 “정평관”은 함경도 정평군(定平郡)의 객관으로 여겨진다. 이 시의 의상을 형성하는 주요 시어는 “정처 없는 가을[秋蓬]”, “저녁 뿔피리[暮角]”, “밤비[夜雨]”, “잎 떨어진 나무[落木]”, “나그네[宿客]”, “먼 길 가는 기러기[征鴻]”, “새벽[全曙]” 등으로 대체로 쓸쓸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가을 저녁, “쇠잔한 성[殘城]”으로 “뿔피리 소리”가 들려온다. 시인은 왜 하필 1구에서 “쇠잔”하다는 수식어를 붙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다음 2구의 “희끗해진 귀밑머리[衰鬢]”와 대(對)를 맞추려는 의도였겠지만, 또한 가을의 조락(凋落)하고 쇠락(衰落)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로도 보인다. 쇠잔한 성에서, 뿔피리 소리를 듣는, 희끗해진 귀밑머리를 가진 시인은 가을을 느낀다. 변방의 가을산은 한밤중에 비가 내려 차갑기만 한데, 거기에 바람까지 불어댄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읽어야 할 표현은 “잎 떨어진 나무”에 바람이 분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잎이 다 떨어져 더 이상 떨어질 낙엽조차 없는 낙목(落木)에 또 다시 바람이 분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외로울대로 외로운 시인에게 또 다시 외롭고 쓸쓸한 가을이 찾아와 더욱 수심겹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구와 6구의 “잠에서 놀라 깨는 나그네”, “먼 길 가는 기러기” 역시 모두 고독과 수심에 싸여있는 시인의 자화상이다. 특히 젖은 날개를 가지고 “먼 길”을 가야하는 기러기는 함경도관찰사를 제수 받고 온 변방을 돌아야하는 시인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다. 이제 시인은 맘껏 잠을 잘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깨기 때문이다. 이는 시인의 예민한 감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 때문이다. 마지막 미련은 새벽 동이 터올 때까지 잠을 못자고 깨어있는 시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갖가지 수심으로 자리에 눕지 못한 시인은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다. 어느새 새벽이 되어 어슴푸레하던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다. 이 시에 나타나

64) 沈彥光, 『漁村集』 권5, 「定平館夜雨」.

있는 시인의 모습은 가을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꿈쩍없이 앉아 사색에 잠겨있다. 앞에서 언급한 “나그네 수심(客愁)”이 절정에 이른 상태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다음에 살펴볼 시에는 변방을 책임진 목민관(牧民官)으로서의 정체성과 서울로 복귀하고 싶은 감정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다음 시를 보자.

눌재 박창세의 운에 차운하여 김옥여와 헤어지며 주다

幕中間草檄 막사가 한가로울 땐 격문을 써놓고
烽火報平時 봉화불로 평화로운 상황임을 보고 한다네
日月垂三載 세월은 삼 년이나 흘렀는데
山河屬一旗 산하는 한 깃발에 속해있네
科條殊俗化 법령과 조목으로 색다른 풍속들을 교화시키고
次第亂繩治 엮혀있는 법도들을 차례로 다스렸네
獨抱安邊策 홀로 변방을 안정시킬 계획 품고서
從容出六奇 조용히 기이한 계책을 내었네⁶⁵⁾

시제의 박창세(朴昌世)는 16세기 전반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박상(朴祥, 1474-1530)을 말한다. 창세는 그의 자이며 눌재(訥齋)는 호이다. 김옥여는 어촌과 가깝게 교유했던 인물로 보이는데 누구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시의 내용상 어촌보다 앞서 함경도에 근무했던 인물인 것 같다. 인용시는 오언율시 2수의 연작시 중 두 번째 것으로 함경도관찰사 시절 지은 것이다. 수련은 관찰사의 임무를 말한 것인데, 한가할 때는 격문을 쓰고 봉화불을 피워 보고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변방을 지키는 수령의 임무이다. 함련은 시인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증시의 대상인 김옥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3구에서 세월이 3년이나 흘러갔다고 했지만, 어촌이 함경도에 재직한 기간은 수개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⁶⁶⁾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자연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4구의 산하(山河)가 한 깃발에 속해있다는 말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깃발이 꽂혀있는 군영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이다. 변방을 지키는

65) 沈彦光, 『漁村集』 권5, 「次朴訥齋昌世韻, 送別金玉汝」.

66) 어촌은 1537년(중종 32) 8월 19일에 함경도관찰사로 제수되었다가 그해 12월 26일에 공조판서에 제수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이에 대한 사항은 『어촌집』 권수, 「연보」의 1537년 조를 참조할 것.

군사들이나 군대는 그 고단함과 위험이 변함없는 것이다. 경련과 미련은 일차적으로 이 지역 수령으로 있었던 김옥여의 업적을 칭송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 임무를 맡게 된 시인 본인의 앞으로의 다짐이기도 하다.

시인은 제 5-6구에서 김옥여가 법령과 조목들을 제정하여 “색다른 풍속들을 교화시키”고, 얽혀 있는 갖가지 법도들을 다스렸다고 말한다. 여기 색다른 풍속이란 함경도 지역 특유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지역은 날씨가 춥고 토질이 메달라 벼나 면화는 거의 나지 않고 곡식은 조와 보리, 의복은 개가죽 같은 짐승의 털가죽 옷을 입고 다닌다. 또 적과 붙어있는 곳이라 상무(尙武)와 호풍(胡風)의 전통이 매우 강한 곳이기도 하다.⁶⁷⁾ 워낙 서울과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각종 국가의 법령들도 시의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변방을 책임지는 수령에게는 군사적인 업무만이 아니라 이같은 행정적 업무도 부여되는 것이다. 미련의 “홀로 변방을 안정시킬 계획 품고서/조용히 기이한 계책을 내었네”에서 “홀로[獨]”라는 단어를 쓴 것은 다른 수령들은 보통 변세의 지방관으로 임명되면 최소한의 임무만 보면서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데, 김옥여는 이와 달리 변방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는데 필요한 훌륭한 행정상의 계책들을 시행했다는 말이다. 이처럼 어촌은 비록 본인의 의지와 달리 함경도로 오게 되었지만,⁶⁸⁾ 이왕 관찰사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니 나라의 방패와도 같은 그곳을 잘 다스려 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였다. 요컨대 이 시기 어촌에게는 서울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관찰사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시에는 부질없는 공명을 추구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자탄이 나타나 있다.

고원관 시에 차운하다

百歲浮生過五旬 덧없는 백 년 인생 오십이 지났는데

67) 함경도의 풍속과 풍토에 대한 사항은 박동욱, 「심언광의 복정고 연구」,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강릉문화원, 2014), 93-98쪽 참조.

68) 어촌이 이조판서로 있다가 함경도관찰사로 사실상 좌천을 당한 이유는 당시의 권신 金安老가 기묘사화에 관계된 사람들을 가두자 이를 극력 반대하다가 좌천된 것이었다. 어촌이 12월에 다시 京職을 회복하게 된 것도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김안로를 탄핵하는 장계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항은 『어촌집』 권수, 「연보」의 1537년 조를 참조할 것.

北來青海已知津 푸른 바다 있는 북쪽에 왔으니 이미 나루터 알지
 傷麟魯野悲吾道 노나라 들관에서 기린 잡힌 것 아프니⁶⁹⁾ 우리 도는 슬프고
 操瑟齊門笑此身 제왕의 문에서 비파를 잡은⁷⁰⁾ 이 몸이 우습도다
 秋盡桑榆催晚景 가을 끝나가니 나무들은 만추의 경치를 재촉하고
 地偏魑魅伴愁人 땅이 외지니 도깨비는 수심에 찬 사람과 짝한다네
 虛名自古常招禍 헛된 명에는 예로부터 항상 화를 부르는 법
 路出關河飽苦辛 변방으로 길을 나서는데 괴로움과 고통만 가득하네⁷¹⁾

고원관(高原館)은 함경도 고원군(高原郡)의 객관으로 여겨진다. 수련에서 시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며 “덧없는 백 년 인생”에서 “오십이 지났”다고 말한다. 자신의 인생을 “덧없다(浮生)”라고 인식하는 기저에는 푸른 바다가 있는 북쪽 함경도 땅에까지 왔으니 나루터를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 나루터를 알고 있다는 의미는 주지하다시피 『논어』에 나오는 공자와 장저(長沮)·갈닉(桀溺) 사이의 대화⁷²⁾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생을 사는 바른 도리, 혹은 인생의 진리처, 학문의 길 등을 의미한다. 시인은 스스로 인생의 정도(正道)를 깨우쳤다고 고백한 것인데, 그 깨우침의 진위여부보다는 배경이 중요하다. 푸른 바다가 있는 북쪽에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북쪽이라는 말은 물론 함경도를 지칭한다. 요컨대 서울에서 높은 관직을 누리며 승승장구 할 때는 잘 몰랐다가 좌천되어 인생의 쓴 맛을 경험하고 나니 나루터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함련은 공자와 제인(齊人)의 고사를 인용하여 당대(當代)가 절필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시대임을 말하고, 동시에 시인 자신이 시대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정에 어두운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을 자탄하고 있다. 경련은 고원관에서 바라본 가을날 변방의 풍광이다. 나무들이 “만추의 경치를 재촉”한다는 것은 나무들이

69) 기린을 잡았다는 말은 절필이나 죽음을 의미한다. 기린은 聖君의 태평시대에 나오는 神獸인데, 공자가 『春秋』를 저술하다 亂世에 기린을 잡았다(獲麟)는 대목에서 절필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70) 자기의 재능이 時俗에서 숭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거나 혹은 실정에 어두운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齊나라 임금인 竽라는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을 좋아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숙한 비파 연주 솜씨라면 제나라에서 벼슬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고 여겨 비파를 안고 가서 대궐 앞에서 3년을 기다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임금은 우리는 악기를 좋아하는데, 비파 연주 솜씨가 아무리 뛰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라는 비웃음만 샀다는 고사가 전한다.(『韓昌黎集』 권18, 「答陳商書」.)

71) 沈彦光, 『漁村集』 권5, 「高原館次韻」.

72) 『論語』, 「微子」. “長沮桀溺耦而耕. 孔子過之. 使子路, 問津焉.” 참조.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는 시적 표현이고, 도깨비가 “수심에 찬 사람과 짝한다”는 말은 시인이 벗삼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을 표현한 것이다. 시인은 마침내 “헛된 명예는 예로부터 항상 화를 부르는 법”이라고 설파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오십 평생은 뜬구름같이 덧없고 헛된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덧없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자기 반성이자 다짐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앞에서 시인이 스스로 얘기한 나루터를 알고 있다는 구체적 실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부질없이 헛된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진실되고 성실한 삶은 어떤 것인가? 다음 시가 이에 대한 한 가지 답을 말해준다.

송자번을 추모하며 차운하다

萬里樓樓欲白頭	만 리 밖에서 살다보니 머리는 세려 하는데
天涯九死骨誰收	변방에서 죽은들 그 누가 뼈라도 거둬주리요
吹竿慣識齊門恥	습관적으로 제왕의 문에서 피리 불던 것 부끄럽구나
鍊石常懷杞國憂	돌 다듬어 하늘을 기우려는 생각 ⁷³⁾ 도 기우에 불과하네
日暮胡山人悄悄	변방 산에 해가 지니 인적이 끊기고
雪消榆塞路悠悠	눈 녹은 변방의 길은 아득하기만
平生弧矢男兒事	평생토록 활을 매는 것 남아의 일이니
更向奚丹作遠遊	또 다시 거란 땅 향해 먼 길을 나서보리라 ⁷⁴⁾

위 시는 송자번을 추모하는 시에 차운한 것으로 어촌이 함경도관찰사 시절 작시한 것이다. 송자번이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시의 내용을 볼 때, 어촌 휘하의 인물로 변방에서 관직에 있다가 죽은 것으로 보이며 자번은 그의 자로 생각된다. 수련은 변방에서 나라를 위해 근무하다 늙어가고 또 죽어간 많은 동지들을 애도한 것으로 송자번 역시 그중 한 명이다. 2구의 “변방에서 죽은들 그 누가 뼈라도 거둬주”겠다는 말은 그 어조가 상당히 냉소적이며 이는 변방의 근무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조정과 나라에 대한 힐책이 담겨 있다. 함련은 어촌이 그동안의 관직 생활을 돌아보며, 나라를 위해 큰 공명을 세우려 했던 일 등은

73) 상고시대 共工氏가 祝融氏와 싸워 이기지 못하자 화가 치밀어 不周山을 무너뜨려 天柱를 끊어뜨렸다. 이에 伏羲氏의 누이 女媧氏가 오색의 돌을 달구어 하늘을 기웠다고 한다. “鍊石”은 轉하여 나라를 위해 큰 공적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74) 沈彥光, 『漁村集』 권5, 「追次宋子蕃韻」.

모두 부질없는 것이었으며 또 자신의 재능이 시속(時俗)의 필요에 들어맞는 것도 아니었음을 자성하는 내용이다. 요컨대 진정한 의미에서 경국제민(經國濟民)하지 못했다는 통렬한 자기 고백인 것이다. 경련은 변방의 고즈넉한 풍광으로 시간적 배경은 계절로는 겨울이요, 시각으로는 저녁이다. 해가 지자 변방의 산엔 인적도 모두 끊기고, 변방의 길은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여기에서 사용된 “아득하다(悠悠)”는 시어는 단지 변방의 길이 아득하게 뻗어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시인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길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인은 그 아득한 길을 용기 있게 나서고자 결심한다. 미련에서 “평생토록 활을 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말하며 “또 다시 거란 땅 향해 먼 길을 나서보”겠다고 다짐한다. 미련을 통해 앞의 함련을 해석해보면 3구의 “부끄럽구나”는 자성이 시인의 진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질없는 공명이나 헛된 명예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진정으로 몸 바쳐 헌신하겠다는 한 유자(儒者)의 진심어린 선언이자 자기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촌의 변새시에는 객창감과 아울러 변방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와 적을 향해 호령하는 시인의 호기(豪氣) 또한 자주 나타나는데, 이 점 역시 어촌시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다음 시를 보자.

〈통군정에 오르다〉 시에 차운하다

古亭登眺謾多情	오래된 정자에 올라 내려다보니 공연히 생각이 많아지는데
無數英雄孰有名	무수한 영웅들 중 그 누가 아직껏 이름을 전하는가
雁塞遙臨青海盡	변방의 기러기는 저 멀리 푸른 바다 끝으로 날아가고
龍泉欲剗白山平	용천검으로 눈 덮인 산을 깎아 평평하게 만들리라
將軍漢節人誰識	부절 지닌 장군을 그 누가 알아주나
太守儒衣身自驚	태수는 선비 옷 입고 스스로 놀라네
薄暮泰樓歌管闌	저물녘 큰 누각에선 악기와 노랫소리 시끄러운데
黃昏戍火望中明	황혼의 수자리 불빛은 바라볼수록 밝구나 ⁷⁵⁾

통군정은 평안도 의주에 있는 누정으로 압록강 기슭 삼각산(三角山) 봉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예부터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했으며 수많은

75) 沈彦光, 『漁村集』 권4, 「登統軍亭次韻」.

시인 목객들이 들렸던 곳이기도 하다. 심언광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민제인(閔齊仁, 1493-1549)이나 한 세대 후배인 배용길(裴龍吉, 1556-1609)의 「통군정차운(統軍亭次韻)」⁷⁶⁾ 시도 위의 어촌시와 마찬가지로 명(名), 평(平), 경(驚), 명(明)의 하평성 제 8번째 경운(庚韻)으로 같은 운자를 사용한 것을 볼 때, 통군정 현판에 걸린 경운(庚韻)의 어떤 시에 차운한 것으로 짐작된다. 제 1구의 “오래된 정자”는 통군정의 유구한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통군정의 건립 시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고려전기에 의주읍성의 북쪽 장대로 세웠다가 1478년(성종 9)에 다시 짓고 1538년(중종 33)에 증축하였으며, 6·25전쟁 때 파괴된 것을 전쟁 후 복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⁷⁾ 함련의 제 3구는 일반적인 변새시의 대표적인 제재인 “기러기”를 등장시켜 통군정에서 바라보는 변방의 풍광을 그리고 있다. 제 4구에는 어촌 변새시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시어이자 의상인 “용천검”이 등장한다. 주지하다시피 용천검은 중국을 대표하는 명검이자 보검인데, 어촌시에서는 시인의 의협(義俠)과 호기(豪氣)를 상징하는 시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시인은 “용천검으로 눈 덮인 산을 깎아 평평하게 만들”겠다고 말한다. 어촌의 다른 시에서는 보기 힘든 호쾌하고 강건한 기상이 느껴진다. 어촌의 시에는 “궁검(弓劍)”·“보검(寶劍)”·“웅검(雄劍)”·“천검(天劍)”·“명검(鳴劍)”·“검광(劍光)”·“검기(劍氣)” 등 검과 관련된 수많은 시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어촌 변새시에서 검이 차지하는 위상을 알 수 있다.

5구의 “부절 지닌 장군”은 문맥상 시인 본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신인 자신이 장군 복장을 해보았지만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임금으로부터 임무를 띠고 변방에 온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는 시인의 모습이 담겨있다. 6구는 5구와 매우 대조적인 상황으로 다분히 시인의 의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의주의 태수는 아마 무신이었을 듯한데, 어울리지 않는 유의(儒衣)를 입은 모습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는 것이다. 장군 복장을 한 문신과 선비옷을 입은 무신이라는 대조적 상황을 만들어 시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미련은 저녁 무렵

76) 閔齊仁, 『立巖集』 권3, 「統軍亭次韻」; 裴龍吉, 『琴易堂集』 권1, 「統軍亭次韻」.

77) 이상 통군정의 건립 시기에 대한 사항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증보문헌비고』를 참조하여 작성된 인터넷 「두피디아」(www.doopedia.co.kr)의 “통군정” 항목을 참조할 것.

통군정에서 벌어지는 잔치를 묘사하고 있다. 아마 태수가 경변사인 시인을 초청하였고 그 자리에 가무를 위한 악사와 기녀들도 있었던 것 같다. “악기와 노랫소리 시끄�럽다”는 말이 이같은 상황을 말해준다. 하지만 정작 잔치의 주인공인 시인은 음주나 가무에는 별 관심이 없다. 시인은 잔치의 상황을 “시끄�럽대[鬧]”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잔치에 관심이 없고 또 집중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신 시인은 8구에서 “황혼의 수자리 불빛은 바라볼수록 밝구나”라고 하며 저녁에 불을 환하게 밝힌 군영과 그곳에서 수자리를 서는 병사들의 모습에 집중한다. 자신을 위한 잔치보다는 변방의 군영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라 해석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련(尾聯)에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들이다. “악기소리”, “노랫소리” 등의 청각적 이미지와 “저물녘”, “황혼”, “불빛” 등의 시각적 이미지는 서로 혼용되어 시를 매우 감각적이면서 동시에 한 편의 그림을 보는 듯 만들어준다. 더불어 설명형의 서술이 아닌 묘사로 시를 끝냄으로써 독자들을 좀 더 시적 상황에 몰입하게 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시인으로서 어촌이 매우 높은 자질을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시에서는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백두산을 통해 변방에서 느끼는 장쾌함과 아울러 국토에 대한 애정까지 보여주고 있다.

장백산을 바라보다

蒼壁無梯土不毛 푸른 장벽은 오를 수도 없고 땅은 불모지인데
 層巒襟帶入靑霄 옷깃처럼 둘러 층층 봉우리는 푸른 하늘에 솟았네
 偏驚漠北寒涼地 차가운 땅 사막같은 추위에 깜짝 놀라니
 五月胡山雪未消 오월 변방의 산에는 눈도 아직 녹지 않았네⁷⁸⁾

시제의 장백산은 백두산을 말한다. 백두산은 예부터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신령한 산이자 또 국토의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와도 같은 산이었다. 하지만 그 주변은 황폐한 불모지에 첩첩산중으로 추위까지 극심하였다. 시인은 제 1구에서 백두산의 우뚝한 압벽과 척박한 환경을 말하고 있다. 2구는 백두산의 수천 봉우리들이

78) 沈彥光, 『漁村集』 권5, 「望長白山, 鴨綠江發源于此山」.

겹겹으로 둘러진 것을 주름진 “옷깃”에 비유하고 푸른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웅장함을 강조한 것이다. 3·4구에서 시인은 백두산이 시막같이 출다고 하면서 심지어 5월에도 눈이 아직 녹지 않았다고 말한다. 여기서 5월은 음력이나 양력으로 계산하면 6월을 넘어갈텐데, 이를 통해 백두산이 얼마나 고지대이며 또 변방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시인은 백두산의 웅장함과 산세를 강조함으로써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변방 지역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IV. 맺음말

변방은 외롭고 쓸쓸하다. 그리고 그 변방을 제재로 한 변새시 역시 나그네의 고독과 객창감으로 가득하다. 어촌의 변새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어촌집』의 「서정고」와 「북정고」는 저자가 각각 평안도와 함경도의 외적으로 나가있으면서 지은 작품들이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서울에서 벼슬할 때와는 전혀 다른 감흥을 어촌에게 가져다주었다. 우선 곳곳에 군영이 설치되어 있고 군사들이 주둔해 있다. 이곳 중 특히 국경지대에는 긴장감이 항상 감돈다. 남녘의 풍요로운 곡창지대와는 달리 땅은 대개가 황폐하고 백성들의 삶은 척박하다. 대부분의 변새시에서 시인은 그곳에 영구히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기에 항상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한다. 그래서 시인은 집과 가족을 생각하며 돌아가고자 한다. 이는 어촌 변새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촌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있는 내내 가족을 그리워하였다. 어촌의 시에는 변새시 특유의 의상이 효과적으로 시화(詩化)되어 변방의 쓸쓸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더불어 시인의 고독감과 객창감을 그려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어촌시의 미적 특질을 밝히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어촌시에 나타난 의상은 가령 석양, 달빛, 눈(雪), 저녁 안개, 저녁연기와 같은 시각적 요소부터 호적(胡笛), 통소, 북소리, 갈까마귀 소리 등 청각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감각적 이미지로 가득하다. 이러한 감각적 의상들은 주로 시인의 외로움과 객수(客愁)를 그리는데 사용된다. 한편 어촌의 변새시에는 국토에 대한 애정과 변방의 중요성, 그리고 드넓은 변방에서 느끼는 장대하고 호쾌한 감정을 호기(豪氣)롭게 써내려

간 시도 보인다. 이러한 시에는 대체로 ‘용천검’을 비롯한 검이 등장하며 기타 군기(軍旗), 갑옷, 말 등 군사(軍事)와 관계된 의상이 나타난다. 또한 문신이 아닌 무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검이나 군기와 같은 군사 관련 의상은 황량하고 척박한 변세의 풍광과 병사들의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그리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또한 동시에 드넓은 변방에서 느끼는 시인의 호기를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한시사적 관점에서 보면 어촌의 변새시는 고려후기 이후 발생한 변새시의 전통을 계승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창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진다. 고려후기로부터 조선중기까지 문집에 변새시만을 따로 편찬한 경우는 많지 않다. 「서정고」와 「북정고」에 실린 시 중에는 물론 변새시의 범주에 포함하기 힘든 작품도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변새시로 규정할 수 있는 작품 역시 상당수가 있다. 따라서 어촌의 변새시는 일단 그 분량 면에서 동시대는 물론 고려조 이후로 16세기까지 활동했던 다른 어떤 시인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작품을 남겼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작법이나 표현기법, 다양한 의상의 활용, 시의 주제 등 질적인 수준 역시 매우 완성도가 높아 어촌을 한국한시사에서 변새시의 주요한 작가라고 규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작품의 형식을 보면 절구와 율시는 물론 고시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특히 고시 가운데는 변방의 풍광과 함께 시인의 정서를 잘 드러낸 작품들이 많아 주목된다. 어촌이 이러한 이같은 변새시의 작법과 기법은 그 후 조선후기까지 이어져 우리 한시사에서 또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어촌시의 문학적 의미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沈彦光, 『漁村集』.

『국역 어촌집』. 강릉문화원, 2006.

『詩經』.

『論語』.

『新增東國輿地勝覽』.

『高麗史』.

『增補文獻備考』.

王昌齡, 『樂府詩集』.

韓愈, 『韓昌黎集』.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洪侃, 『洪崖遺藁』.

李達衷, 『霽亭集』.

李穡, 『牧隱集』.

鄭夢周, 『圃隱集』.

申叔舟, 『保閑齋集』.

姜希孟, 『私淑齋集』.

徐居正, 『四佳集』.

李承召, 『三灘集』.

洪貴達, 『虛白亭集』.

丁壽崗, 『月軒集』.

奇遵, 『德陽遺稿』.

閔齊仁, 『立巖集』.

裒龍吉, 『琴易堂集』.

車天輅, 『五山集』.

許楚姬, 『蘭雪軒詩集』.

朴世堂, 『西溪集』.

李德懋, 『靑莊館全書』.

柳得恭, 『冷齋集』.

李彦瑱, 『松穆館燼餘稿』.

趙秀三, 『秋齋集』.

黃玟, 『梅泉集』.

『한국고전종합DB』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2. 단행본

박영주, 『어촌 시 평설』. 강릉문화원, 2015.

하정승, 『고려후기 한시의 미적 특질』. 박영사, 2017.

3. 논문

김영주, 「고려-조선전기 변새시의 양상 연구」. 『동방한문학』 60집, 2014, 7-9쪽.

_____, 「한국 한시에 나타난 출새시의 수용과 변이」. 『동방한문학』 62집, 2015, 259-267쪽.

김은정, 「어촌 심언광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5호, 2000, 15-19쪽.

_____, 「어촌 심언광의 교유시 연구」. 『어촌 심언광 연구총서』 1집, 강릉문화원, 2010, 5-29쪽.

김형태, 「어촌 심언광 시의 자연인식과 상징성 연구」.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 강릉문화원, 2014, 25-48쪽.

박동욱, 「심언광의 북정고 연구」.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 강릉문화원, 2014, 82-107쪽.

박영주, 「어촌 심언광 시의 역사적 평가」. 『어촌 심언광 연구총서』 4집, 강릉문화원, 2017, 198-221쪽.

신익철, 「심언광의 동관록과 귀전록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그 의미」. 『어촌 심언광 연구총서』 1집, 강릉문화원, 2010, 151-166쪽.

하정승, 「어촌 심언광의 한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특질」. 『동양학』 55집, 2014, 66-67쪽.

4. 사이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jsp>).

한국고전번역원 DB(<http://db.itkc.or.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ttp://db.history.go.kr>).

국 문 초 록

조선중기에 활동했던 문인 어촌 심언광은 많은 시편을 남겼지만 특히 변새시의 작가로서 그를 주목해야 한다. 일단 양적인 면에서 다작을 하였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작법과 표현기법 등 수준 높은 변새시를 창작하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그의 문집 『어촌집』 속의 「서정고」와 「북정고」를 중심으로 어촌 변새시의 다양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한시사에서 고려중기 이규보에게서 시작된 변새시 창작은 그 후 김구, 이달충, 정몽주 등을 거쳐 여말선초의 권근으로 이어진다. 심언광은 시기적으로 고려시대와 조선 중·후기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문집 편찬시 변새시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이후 작가들의 변새시 창작에 도화선을 지켰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가이다. 어촌의 시에는 변새시 특유의 의상이 효과적으로 시화(詩化)되어 변방의 쓸쓸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더불어 시인의 고독감과 객창감을 그려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어촌의 변새시에는 드넓은 변방에서 바라보는 일망무제의 풍광을 통해 시인의 호기(豪氣)를 드러낸 작품들도 상당수 있다. 어촌이 이룩한 이같은 변새시의 작법과 기법은 그 후 조선후기까지 이어져 우리 한시사에서 또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어촌시의 문학적 의미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8. 12. 14.

심사일 2019. 01. 13.

게재 확정일 2019. 02. 21.

주제어(keyword) 어촌(Eochon), 심언광(Sim Unkwang), 변새시(Byunsaisi), 객창감(Traveler's lonely feeling), 새상곡(Saisang-gok), 새하곡(Saiha-gok), 출새(Exodus border), 호기(Broad vigor)

Abstract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appeared in Sim Unkwang's poetry of Frontier-Focusing on his poem, 「Seojunggo」 and 「Bukjunggo」

Ha, Jung-seung

Sim Unkwang is a representative poet in the middle of the Choseon Dynasty, We should fix our sight upon his poetry of Frontier. Because he writes prolifically and was excellent in representation techniques, In this manuscript, I took a look at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Sim Unkwang's poetry of Frontier focusing on his poem, 「Seojunggo」 and 「Bukjunggo」. Sim Unkwang acted as not only a bridge between the Koryo Dynasty and the second half of the Chosun Dyansty, but also the direct cause of descendant's creating poetry of Frontier, which was affected by setting items of poetry of Frontier in his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His experience in 'Border Fortress(traditional Chinese: 邊塞)' of Pyongan province and Hamkyong province brought special inspiration different from the days of official in Seoul. Sim Unkwang always missed his family in Pyongan province and Hamkyong province. His writing style in poetry of frontier formed one flow of the history of sino-korean poetry. Thus literary significance of his poetry of frontier cannot be too highly estimated.